

# 남원시 예산 10년새 두배 꺾충

### 2008년 3583억원→내년도 6481억원 일자리창출·경제 활성화 등 중점투자

남원시 예산규모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남원시 예산은 6,481억원(일반회계 5,937억원, 특별회계 545억원)으로 지난 2008년 3,583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10년 사이 2,89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예산규모가 이처럼 확대된 주요 요인은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인 지방교부세 3,044억원을 확보해 남원시 2018년도 총예산의 47%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남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환주 시장과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남원시는 내년 예산을 남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농림분야 1,533억원(23.7%), 사회복지 분야 1,458억원(22.5%), 환경보호분야 765억원(11.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78억원(7.4%), 문화 및 관광분야 442억원(6.8%) 등이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80억원, 교통대로 개설 30억원, 신정대로 개설 30억원이 반영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촌 활력화 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210억원이 투자된다.

대통령 정책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연구·복원과 남원읍성 복원사업 25억원, 가야문화유산 발굴조사에 12억원을 들여 동부권 문화유적 역사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2018년도 당초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기반시설에 중점 투자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정치권, 남공회 등과 공조하여 2018년도 국가예산 85건 1,052억원, 공모사업 86건 1,237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과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18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유기농업 육성 힘 모은다

### 순창군·전남대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과 전남대학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순창군과 전남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하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18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이규연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계자와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과 김재국 전남대학교 LINC 사업단장, 김길용 농식품생명화학부 교수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순창군은 최근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친환경 농법과 저비용 자재 개발 등 업무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저비용으로 누

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친환경유기농법과, 축사(퇴비공장) 악취 해결방안, 농가(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은 유기농퇴비개발, GCM 농법 등에서 앞선 연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와의 이번 업무협약이 유기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친환경 유기농 퇴비 개발 및 재배 실증 연구, 자연순환 축산모델 개발,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학(원)생 대상 현장실습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황숙주 군수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전남대학교의 우수한 친환경농업기술 노하우에 대한 실용화 방안 등 공동연구와 협력을 통해 순창군과 전남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유기농업을 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총 18건 안건·심의 의결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읍 읍에 군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고, 2018년 예산안을 의결하여 내년도 임실군 살림을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실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시책 및 협안 사업, 군정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목적성에 입각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7건, 처리 요구 36건, 건의 1건으로 총 44건을 발굴해 집행부에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또, 2018년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해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사업 32억 3,7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총 3,674억 4,4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처리했다.

한편, 문영두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봉황인재학당 입학설명회 및 교육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 임실 봉황인재학당 새내기 맞이 21일까지 내년 상반기 입학생 등록 접수

임실군을 선도할 미래인재교육의 산실인 봉황인재학당이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첫 입학생을 맞이한다.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18학년도 상반기 입학생 등록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임실군청 2층 다목적작은 도서관이다.

등록대상은 최종 입학생으로 선발된 180명이며, 예비 중학생 1학년 50명, 2학년 60명, 3학년 70명이다. 당초 선발인원은 150명이었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180명으로 증원됐다. 이들 학생들은 입학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2일부터 봉황인재학당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봉황인재학당은 임실을 봉황로 301번지(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위치, 내년 1월 개원하는 공립교육원으로 지역 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학당은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의 인재를 중학생 단계부터 적극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교육의 장이다.

심 민 군수는 "봉황인재학당은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농촌지역 학생들을 우수인재로 양성하는 든든한 스승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산 사교육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지역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희망심어주는 청년일자리 사업 활발

남원시·7733부대 3세대·고용복지+센터, 협업 지원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불황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남원시가 발 벗고 나섰다.

이 일환으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남원시(시장 이환주), 남원고용복지+센터(소장 장인숙), 7733부대 3세대(3세대장 조철훈)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 협약은 7733부대 3세대장이 남원시를 방문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둔 상근예비역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역 후 일자리가 없어 이혼향도 현상이 발생한다는 애로점을 토로한 것에 착안, 주민복지과에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협약 내용은 7733부대 3세대는 월별 전역예정자 중 군복무기간 동안 우수하게 근무한 사람에 한해 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여 남원시에 매월 통보하고, 남원시는 7733부대 3세대로부터 추천 받은 자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추천 및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협약으로 7733부대 3세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총 79명 중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은 인건비로 1억5천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 농업농촌 혁신대학 졸업식

순창군이 농업·농촌을 이끌 39명의 핵심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쳐 지역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군은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39명의 졸업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올해 농업농촌 혁신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순창농업농촌혁신대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농촌인력 양성 교육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39명의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31강좌, 6차산업 등 농업선진지 현장방문 5강좌 등을 진행했다.

강좌는 농산물 마케팅, 친환경농업, 농가경영개선을 중심으로 농촌체험 및 리더십 등 변화하는 농촌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 농업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반영됐다. 특히 농업의 다차산업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전문농업인양성반' 대표인 양홍식(금과면, 62)씨가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았고, 홍성기(순창읍, 64)씨 등 9명이 군수 표창패와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은 9기까지 총 378명을 배출해 순창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선도 농업인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관광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은 회문산 자연휴양림 체험교실에서 진행됐으며 순창군 강성연 체육문화시설사업소소장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원팀 최성희과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기관은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 및 인력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관 다량한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회문산자연휴양림 숙박객과 입장객에 한해 순창군 승마장 1일 기승 이용료를 30%할인해 주기로 합의해 순창군 승마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이번 업무협약은 양기관이 관광과 산림 체험 기반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산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관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